



그 순간
성명진 지음

등단 24년만의 첫 시집

등단 24년 만에 성명진 시인이 첫 시집 '그 순간'을 펴냈다. 전남일보 신춘문예와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은 1993년 동시집 '죽구부에 들고 싶다'(장비)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사소한 일상의 순간에서 포착한 진실을 은근슬쩍 독자들에게 펼쳐 보인다. 사소한 간섭을 배제한 시인의 시어는 독자들이 하여금 자연스레 시 자체의 울림에 빠져들게 한다. 특히 시집의 서시라고 할 수 있는 '손'에는 허장성세를 경계하고 관조하는 시인의 시적 지향성이 담겨 있다. 발문을 쓴 정경은(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인의 시적 어조에 대해 "밝음과 어둠, 열매와 뿌리, 빈함함과 풍족함, 부처와 중생, 늙음과 젊음, 삶과 죽음 등의 대극적인 것들이 한 몸이라니 것을 증명하는 우주적 풍경"이라고 평한다. <문학들·1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이란과 미국
다카ishi 가즈오 지음

미-이란 냉·온탕 외교역사

미국의 IS 공습으로 '새로운 중동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중동지역과 세계정치에서 이란의 역할은 물론 미국, 이란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진 책이 나왔다. 쿠에트대학 연구원을 역임했던 다카ishi 가즈오(高橋和夫)가 펴낸 '이란과 미국'은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이란과 미국의 양국 관계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책은 모두 9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중동지역에서의 민주화 과정, 이집트와 이슬람화, 이슬람의 각성과 시리아에서의 내전,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심 내용이다. 또한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반목, 쿠르드인 문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이란 핵 위기를 둘러싼 협상과정 등이 담겨 있다.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복잡한 관계와 '새로운 중동전쟁'의 향배를 가능케 하는 계기를 준다.

<한울·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어우동은 사랑으로 자아 찾은 '희대의 방랑자'

어우동, 사랑으로 죽다

김별아 지음



"이름이 곧 상징인 사람이 있다. 그의 행적은 어떤 가치를 대변하고, 가치에 대한 열원까지도 망라한다. 하지만 때로 상징은 낙인이 되어버리고, 그 삶은 인간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지 못한 채 편견으로 소급된다." ('작가의 말' 중에서)

그렇다. 작가의 말대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름이 '브랜드' 자체인 사람이 있고 '금기'를 상징하는 사람이 있다. 전자에 이순신, 세종 등이 해당한다면 후자는 김개시, 장녹수 등이 해당한다. (물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미실'의 작가 김별아가 조선의 여인 '어우동'을 소재로 '어우동, 사랑으로 죽다'를 펴냈다. 작가가 말하는 그 이름의 상징에 따르면 어우동은 '금기'를 대변한다. 불온하면서도, 음탕하고, 욕망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어우동의 일생은 한마디로 드라마틱하다. 고관대작의 딸로 태어나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손자며느리로 종친부에 적

을 올린다. 그러나 기생에 빠진 남편은 그녀를 3년 만에 내치고 만다.

소박을 당한 어우동은 스스로 '현비(玄非)'라는 이름을 짓고 여러 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성종 11년(1480년) 교수형에 처해진다.

역사가 전하는 그녀의 삶은 한편의 영화를 방불케 하지만, 그러나 규정의 폭은 지극히 단편적이다. '당녀' '사랑의 화신'이라는 일방의 평가는 어우동의 내면과 가정사리는 본질적인 면을 간과한데서 비롯되었다. 역사는 역사일 뿐,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과 시각은 어느 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별아 작가는 어우동의 어린 시절과 평탄하지 못했던 가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어우동은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와 방탕한 오빠 사이에서 자랐고 결혼해서는 기생에게 빠진 남편에게 소박까지 당한다.

작가는 어우동을 이렇게 평한다. "내가 만난 그녀는 상처받은 아이였다. 사랑받은 적이 없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한없이 외로운 아이였다. 또한 세상을 믿지 못하는 뿌리 깊은 불신자로서, 혐오와 환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해와 자멸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허위와 허영과 허상에 엮여 먹이는 별종의 여인이었으며 '존천리 멸인욕(存天理 滅人慾)'을 내세우는 위선의 나라 뒷골목에서 조롱하듯 농타치는 반항아이기도 했다."

작가는 영화와 드라마 등을 통해 익숙한 어우동의 모습과 달리, 모험적이며 당당한 이미지를 덧붙인다. 사랑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자아를 찾는 '희대의 방랑자'로 변모시킨다.

그러나 당시는 엄격한 신분 사회였다. 일부중사, 남존여비 같은 덕목을 최고로 치는 봉건 사회였다. 여성의 욕망은 철저히 억압당했고, 무엇보다 자기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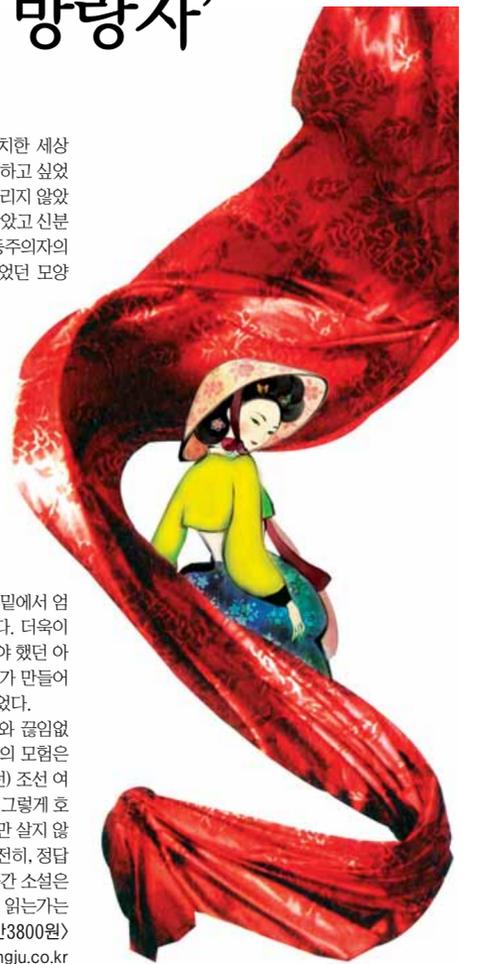
그러나 어우동은 이 답답하고 후안무치한 세상에 반기를 들었다. 사랑으로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상대를 왕족에서 노비까지 가리지 않았다. 그뿐인가. 문신과 무신을 구별하지 않았고 신분의 한계를 두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평등주의자의 면모와 탐미주의자의 면모가 깃들여 있었던 모양이다.

불행하게도 어우동의 모험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정은 "음행을 자행하여 풍속을 문란하게 한 부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지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 조정의 대신 12명 중 8명이 반대했지만 4명이 손을 들어 극형에 찬성했다.

작가는 당시 성종이 왜 어우동을 교형에 처했는지 자세하게 기술한다. 성종은 일방의 평가와 달리 내면에 상처와 열등감이 많은 왕이었다. 열세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탓에 대비의 수렴정정과 엄한 어머니 밑에서 엄격한 '군왕 수업'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성종은 왕비 윤씨를 투기 죄로 폐시킴으로써 아픔이 있었다. 결국 어우동은 불건의 시대가 만들어 낸 시대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

"늑대 같은 야성, 힘과 직관과 장난기와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사내들을 '사냥'한 어우동의 모험은 우리가 몰랐던(혹은 외면하거나 거부했던) 조선 여성의 또 다른 민낯을 드러낸다. 그녀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고분고분하고 나긋나긋하게만 살지 않았다. (또한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다) 여전히, 정답은 없다.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 소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닐지니, 그녀를 어떻게 읽는가는 온전히 독자들의 몫이다." <해냄·1만3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같은면서도 다른 한·중·일 3국 전통 가옥의 미학



집, 인간이 만든 자연
김경은 지음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전통과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다양한 체험 마을이 붐비고 있다. 그 가운데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 마을은 조상들의 지혜와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푸근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대청마루, 집밖의 풍경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야트막한 담장, 교류와 소통의 매개 마당은 한옥이 갖는 장점이다.

이처럼 전통 가옥은 그 나라의 지리와 기후, 생활양식과 가치관, 미의식 등을 담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전통 가옥 역시 그들의 철학을 반영한다.

경향신문사 편집위원이자 일본 조지프대학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던 김경은 씨가 펴낸 '집, 인간이 만든 자연'은 같은면서도 다른 동양 3국 집의 미학과 삶의 철학을 담고 있다.

저자가 보는 3국의 철학적 토대는 기(氣)다. 이 기는 가옥의 기반인 터가 되고 그 터는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를 교환하게 한다. 이 터와 기를 교환하는 방법은 3국이 모두 다르네 우리나라는 산이 중심이고, 일본은 물이 중심이다. 중국은 집터보다 방향에

신경을 썼다. 가옥배치에 있어서도 한옥은 안채와 사랑채를 나누어 남녀 구별을 했다. 그러나 안주인이 거거하는 안채가 가옥의 중심을 이루어, 가옥구조로만 보면 여성 상위의 계급역전 현상을 보인다. 반면 중국이 전통가옥은 성별 구별이 아닌 세대·가구별로 구분을 했다. 자식들이 결혼하면 분거하는 우리와 달리 똑같은 집을 지어 하나의 세대를 구성했다.

일본은 독특한 가옥제도에 탓에 구성원이 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방의 위치를 다르게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일본의 전통 가옥은 여성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보세·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딸과 손녀에 전하는 사랑과 감사의 고백



나의 딸의 딸
최인호 지음

"내게 온 너는 누구인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우리는 누구인가."

작가 최인호가 40년간 적어 내려간 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딸의 딸에 대한 12년 사랑의 기록인 '나의 딸의 딸'이 작가의 1주기에 맞춰 출간됐다. 책은 작가가기에 앞서 한 아버지이며 할아버지인 최인호가 딸과 손녀에게 전하는 가슴 벅찬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다.

단순히 작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가족'에게 바치는 찬미이며,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지상의 삶에게 작가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책은 총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작가의 딸 다혜의 탄생에서부터 유치원 입학, 초·중·고 시절, 대학교 입학과 졸업, 결혼, 신혼생활 등으로 이어지는 40년에 이르는 세월을 사랑과 경이로움의 시선으로 기록해나간 이야기다. 2부는 다혜가 딸 정원을 낳으면서 시작해 손녀에 대한 할아버지의 애뜻한 사랑과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는 12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백·1만4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